특·별·기·고

개혁교회의 성경관

The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심재승
(조직신학)

Ⅰ. 방법론
Ⅱ. 성령 영감의 특성
A. 영감의 특성: 유기적 영감
B. 영감의 범위: 축자 영감
C. 영감의 목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Ⅲ. 성경의 계시 역사
Ⅳ. 성경의 무오성
Ⅴ. 원본, 원어사본, 번역본
Ⅵ. 결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관한 교리는 늘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특별히 근대에 들어와 성경비평의 영향으로 진보적인 현대신학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간과 또는 축소되면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리고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온,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는 것은 바로 보수신학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성이 뚜렷한 한국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그러하다. 한국에 복음을 전한 북미의 선교사들의 신앙이 당시에 성행한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한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한국 기독교의 성향도 개혁주의와 함께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1]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으로, 특별히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의 투쟁의 결과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교회의 중요한 신앙 유산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 유산은 불행하게도 한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며 남아있게 되었다. 넓게는 복음주의적인 성향은, 좁게는 근본주의와 세대주의 논쟁의 전투적인 성향은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려는 원래의 목적을 넘어서 다분히 경직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직된 면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를 다분히 무오성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그 논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보수성을 측정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상대적인 지고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성경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성경관의 질문은 다분히 성경은 정확무오한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정확무오한다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infallibility"로 이해되는가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의미의 무오성을 내포한 "inerrancy"로 이해되는가로 맞추어졌다.

1. 「개혁사상」 89, 가을호의 "한국 보수신학의 진단"은 한국 보수신학의 형성 과정을 크게 개혁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세대주의의 영향으로 보며 이러한 혼합된 신학의 영향 아래에서 전개된 한국 보수신학의 성경관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무오성에 대한 신앙고백에 치중하는 면에서 그것은 첫째로, 성경교리를 폭넓게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들, 즉 유기적 영감의 본질과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이해와 언어로 표현된 적응성(accommodation), 계시역사와 무오성과의 관계, 성경본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령의 내적인 증거, 그리고 정경과 번역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중요한 요소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주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그러한 신조적인 경향은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특별히 성경의 해석과 단절되고, 형식화된 교리가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남기게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대항하여 성경의 권위를 보수한 당시 교회의 투쟁은 분명히 그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신앙 보수라는 의의에서 한 걸음 발전하여서 성경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보수신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교조적인 교리의 논쟁을 통해서 경직화된 가장 높은 성경의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해 온,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정립되고 그 후 발전된 높은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며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전파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어야 한다.

보수신앙을 가진 성도는 누구나 성경이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인 것을 고백한다. 보수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성경관에 대한 질문은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냐 부분적이냐 하는 논쟁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어떻게 정립되며 그 성격이 무엇이냐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정확무오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성경교리에 대한 이해가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성경의 내용과

목적을 밝히도록 한다.

본고의 목적은 개혁주의 성경관이 성경이 쓰여진 상황과 목적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 영감의 성격, 계시 역사의 내용과 특성을 통해서 정립되었으며, 성경이 정확무오한 것은 성경의 목적과 특성 안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그리고 번역본에 관련된 성경의 권위를 밝히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시각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서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합당한 성경의 이해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본고는 성경관을 정립하는 방법, 성령 영감의 성격, 계시 역사의 특성, 성경 무오성의 내용, 그리고 원본, 사본, 번역본에 있어서의 성경의 권위를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이해되는 본 성경관의 내용은 요한 칼빈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정립하고 그 후 17세기의 정통신학을 통해서 확인되고 발전되었다.[2] 이들의 성경교리는 다시 20세기 초 화란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헐만 바빙크에 의해서 재확인되고 북미에서 루이스 벌코프에 의해서 재생산되었다.[3] 본고는 이러한 신학자들을 기초로 하여 현재 개혁교단이 실제로 고백하고 활용하는 성경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개혁교단은 한국교계에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으로 알려진 북미 개혁장로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으로 그 교단에서 1961년도와 1972년도에 쓰여진 총회 보고서를 중심

2.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정통신학에서 정립된 성경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다음에서 살펴보라: 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2, *Holy Scripture: The Cognitive Foundation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3. Abraham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r. Henri de Vries, (New York: Funk & Wagnalls Co., 1900);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으로 하였다.[4] 총회 보고서는 총회 산하 신학연구 위원회에서 신학자가 관련되어 집필되기는 하였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 읽히는 신학논문이나 신학교의 교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실제로 읽히고 사용되는 교회 문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I. 방법론

성경의 권위는 첫째, 성경의 콘텍스트 안에서, 즉 성경 자체의 목적과 특성에서 찾아야 하며, 성경 외의 어떠한 이론과 증거에서도 찾을 수 없다. 성경의 권위는 아무리 지고의 성경관이라 할지라도 성령 영감과 계시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립된 것은 올바른 성경관이라 할 수 없다.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오하며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지만, 이 연역적인 논리만으로는 높은 성경관 교리를 정립할 수는 있어도, 성경 권위의 포괄적인 이해, 즉 성경 권위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더 나아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이 영감되었으므로 무오하다는 연역적인 논리만 강조되고, 어떤 면에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무오한가 하는 무오성의 성격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독특한 무오성이 상실된 교리가 되고 만다. 이러한 신학적인 주장은 성경 기록에 있어서의 신성만 언급하고 그것의 인성을 제외시켰다는 면에서, 따라서 성경의 특성과 목적을 떠났다는 면에서 성경 외적인

4. 두 해에 나뉘어 쓰여진 이 두 보고서는 북미주 개혁장로교단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성경관이 변화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관의 다른 두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괄적으로 올바른 성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보고서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61년도 보고서 24, "성경과 신조에 나타난 infallibility 와 영감"은 *Agenda of Synod* 1961, pp. 119-194에; 1972년도 보고서 44, "성경 권위의 특성과 범위"는 *Agenda of Synod* 1972, pp. 359-412 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보고서 모두 *Acts of Synod* 에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Agenda*의 페이지를 따른다.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인 면과 함께 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된 인간의 낮은 언어와 이해에 적응해서 쓰여졌다는 성경의 인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기록은 사람을 매개로 하여 쓰여졌다는 역사성을 포함할 때에만 사람에게 필요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5] 개혁주의 성경관은 성령의 영감에 근거하고 있지만 영감론에 근거한 연역적 논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고 단절된 교리로 전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감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계시 역사와 그것의 이해에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성경의 이해를 가져다준다.

둘째로, 인간역사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관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과 목적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고유한 방법 안에서 정립되어야지, 성경 외의 어떠한 이성적인 증명의 산물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학의 전통은 성경의 권위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에 두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한 칼빈을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성경의 영감에 두었다.

>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우선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의 명민한 지성이나 그들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았고, 이성적 증거에

5.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와 이해에 적응되었다는 개념 (accommodation)은 요한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Ford Lewis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 *Interpretation,* 31/1 (1977), pp. 19-38. 이러한 개념은 칼빈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에도 나타난다.

> 안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세우고 그 안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사람의 악한 말로부터 [이성적으로] 변호한다 해도 그는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의 경건이 요구하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란 한낱 사사로운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 그리고 근거 없이 믿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나는 성령의 증거가 이성의 증거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합당한 증거인 것 같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인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선지자들의 기록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할 수 있다.[6]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긴밀하게 결속(intrinsic bond)되어 있다. 말씀과 성령을 따로따로 독립되어 설명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혁신학은 전통적으로 "말씀"을 성삼위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으로 이해하였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성경의 관계가 일치로 연결되고 성경의 권위는 자연히 신성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관을 정립하는 방법은 외적인 증거를 강조하는 변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성경 자체의 주장에 두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은 성령이 주는 내적인 확신 위에서만 그 올바른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6. 요한 칼빈, 「기독교강요」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vii.4.

> 첫째, 성령은 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인간적인 요소 안에 구성하였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목적 안에 거하도록 하였다. 둘째, 성경 내용의 난해한 거침돌들은 믿음의 움직임 없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기록되었다.[7]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의 권위를 성령의 내증이라는 근거 위에 세운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아무데로나 날아가도 되는 무절제한 영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성 안에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틀을 말한다. 그 의미는 성경 본문에 관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연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믿음의 확신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오직 성령의 내증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성경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사실 칼빈 자신도 *기독교강요*에서 성령의 내증을 근거로 성경의 내용이 이성이 부여하는 어떠한 확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한 후에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성경의 외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성경의 고대성이나 문체, 그리고 신구약의 일치된 내용들을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1961년도 보고서 24는 성경의 무오교리를 정립하는 방법론을 서술하면서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성경 자체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8] 만약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된 사실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 외에도, 성경의 사실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경험주의에 빠져 믿음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

7.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p 78.
8. CRC 총회 보고서, 1961: pp 158-59.

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II. 성령 영감의 특성

개혁주의 성경관은 성경의 중요한 몇 구절들을 proof text로 사용하는 연역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며 성경 본문의 충실한 주해와 개혁주의 신조들에 근거하고 있다. 1961년도 보고서는 딤후 3:16, 17; 벧후 1:19-21; 마 5:18; 요 10:35를 23 페이지에 걸쳐 주해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해는 생략하고 거기서 도출한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경의 무오성 (infallibility)은 성경 주해에서 얻은 추정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의 명백한 주장이다."[9]

A. 영감의 특성: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은 기계적 영감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성경 기록의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소수 기계적 영감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성경을 원어로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기적 영감의 증거들을 놓치지 않는다. 유기적 영감이란 성경 기록에 있어서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 즉 그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단어, 어법과 문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말한다.[10]

유기적 영감에서 중요한 개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적응(accommodation)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할 방법은 인간의

9.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59.

10.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153.

언어로 인간의 위치에 적합하게 말하는 적응이었다. 이것은 계시 자체가 요구하는 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이다. 사람이 개구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인간의 언어와 방법으로 개구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개구리가 이해할 것인가?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개구리의 언어와 모습으로 그리고 개구리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뿐일 것이다. 칼빈은 계시를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양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모가 갓난아기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아듣도록 그들의 언어와 양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는 성격의 계시를 설명하고 있다.[11]

성경의 진리는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지만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인간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계시되었듯이(성육신은 하나님의 적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계시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였다. 성경 기록에 저자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 권위에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유기적 영감은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성령 영감의 강조점은 인간적인 기록에 있지 않고 그 인간적인 기록을 사용하셔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역사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계시의 역사성과 성령 영감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며 성령 영감의 능력을 불신한 결과이다.

11 칼빈, 「기독교강요」 I.v.1; I.xiii.1; I.xvii.13; I.xiv.3; II.vii.2.

B. 영감의 범위: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의 결과는 축자영감이다. "우리는 성경의 개념뿐만 아니라 단어까지도 영감되었다는 유기적 영감을 가르치며 성경 전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12] 성경은 그 전체와 부분, 그 형태와 내용, 그리고 그 개념과 단어 전부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형태"란 form으로서 성경의 내용(content)이 쓰여진 문학적 장르 또는 표현의 양식을 말한다. 성령의 영감이 성경의 내용과 개념뿐만 아니라 그 표현 양식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은 영감의 범위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성경의 기록은, 사실 모든 기록은, 어떤 표현 양식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표현 양식을 떠나서는 그 내용을 간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기적 영감을 고백하는 성도는 성경언어에 (따라서 신학의 언어에도) 유추적 언어의(analogical language) 요소가 있음을 이해한다. 예수께서는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셨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몇 가지로 해석되어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아버지"라는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는 나를 낳아주신 남성 부모를 의미한다.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의미하는가(univocal language)?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성경의 "아버지"는 일상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equivocal language)? 그렇지도 않다. 성경의 "아버지"는 인간 삶에서 경험하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의 최상급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유추적으로 최상급화한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 삶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도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

12.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23.

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에 사용된 대부분의 표현 양식들은, 역사서, 시, 편지, 등 현재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읽어도 무방할 정도로 일반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나 예언서나 묵시록 등 현대의 표현 양식과 상당히 다른 문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약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5,000명과 함께 8개월분의 급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열두 광주리 등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숫자들을 동일한 "양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8개월분의 급여, 오병이어, 그리고 열두 광주리는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숫자의 셈과 같이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정확하게 그러한 숫자를 지칭하며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열두 광주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5,000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가 의미하는 바 4,999와 5,001 사이의 숫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당시의 사회풍습을 따라서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들을 헤아리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숫자를 현대식으로 옮긴다면 아마도 10,000명이 넘는 숫자일 것이다. 실제로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성경이 약 5,000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성경의 기록이 "정확무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신앙고백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당시의 세계관과 풍습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당시의 "양식"을 따라서 그렇게 숫자를 이해하고 기록하였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당연히 당시의 시대 양식을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시편 82:6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적인 "양식"으로서 그 "내용"이 사람을 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82편의 콘텍스트인 판단하는 입장에서 사

람이 "신"과 같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에서 인용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35-36절의 상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옳게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의 뜻이 성경의 내용과 함께 그 독특한 표현 양식에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저자의 독특한 개성과 표현 형태를 사용하셨다는 유기적 영감과 잘 연결된다.[13]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모든 단어에까지 미친다. 성령의 영감은 절대영감(plenary inspiration)과 축자영감(verbal inspiration)을 포함한다. 전자는 영감의 범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영감은 성경의 전부에 이르고, 후자는 영감의 강도를 의미하여 모든 단어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14] 그러나 성령의 영감이 성경 전부에, 모든 단어에 미친다는 것은 성경의 콘텍스트라는 틀 안에서만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단어는 성경이 목적하는 바의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성경의 콘텍스트와 동떨어진 단어 하나하나에서 기계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찾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다는 콘텍스트 안에서(요 3:16) 의미가 있지, 그 콘텍스트를 떠나서는 영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신학을 따라서 워필드는 단어의 영감은 성경의 문맥과 내용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5]

13. CRC 총회 보고서, 1961: pp 143-46.
14.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23.
15. CRC 총회 보고서, 1961: pp 151-52.

C. 영감의 목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은 구원과 구원된 삶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영감되었다. 다음의 성경구절은 성경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히고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5-16).
>
>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모든 성경이 한 목적을 위해 영감되었지 한 성경이 모든 목적을 위해 영감되지 않았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성경을 사용하며, 이 한 가지 관점에서 성경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한다."[16]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실되고 필연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17] 헐만 바빙크는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도록 한다. 성경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과학의 교과서가 아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의 인간 역사를, 이스라

16.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56.
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6 (I.7 참조).

> 엘의 문학의 역사를, 또는 초대 기독교 문학의 역사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곧 실망하고 만다... 이러한 역사비평은 성경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비평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종교, 이스라엘의 문학을 재구성하려하며, 그 저변에 흐르는 전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에 요구하는 실수이다.[18]

북미 복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성경이해로 간주되는 *성경무오*를 위한 *시카고 선언*은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시카고 선언은 요약문에서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은 성경이 "다루는 모든 내용"에 적용된다고 모호하게 말한다: "성경은... 그것이 다루는 모든 내용에 무오한 신적 권위를 가진다." "성경은 그것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가 없다."[19] 그러나 선언과 반박문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은 과학과 역사 등 모든 면에서 무오하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거짓, 잘못, 허위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이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구속에 관계된 주제로만 제한되고 역사나 과학에 관한 주장을 제외하는 것을 부정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구 역사에 관한 과학적인 가설들이 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합당하게 뒤엎을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한다.[20]

---

18. Anthony Hoekema, "Kuyper, Bavinck, and Infallibility," *The Reformed Journal*, (May, 1961), p. 21.

19. 「성경무오를 위한 시카고 선언」 (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1978, Summary Statement, 2와 4: "Holy Scripture... is of infallible divine authority in all matters upon which it touches." "Scripture is without error or fault in all its teaching."

20. 「시카고 선언」 Articles of Affirmation and Denial, art. XII: "We affirm that Scripture in its entirety is inerrant, being free from all falsehood, fraud, or deceit. We deny that Biblical infallibility and inerrancy are limited to spiritual, religious, or redemptive themes, exclusive of assertions in the fields of history and science. We further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어 왔다. 문제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이 어떠한 시각에 의해서 정립되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카고 선언은 다분히 현대의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진리의 개념을 성경에 주입하고 성경으로 하여금 그러한 진리를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은 창조기사로부터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왕이신 것을 가르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의 창조자시고 그 진리의 주인이심이 분명하다. 그러한 순전하게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기록이라는 계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비록 지고의 성경권위를 주장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 자체가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죄인되고 제한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계시되는 특별계시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살펴보는 첫 단계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의 목적과 관련지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의 진실성, 명료성, 그리고 충분성이다. 불링거와 칼빈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이러한 특질은 개혁신학의 성경이해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목적을 위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 변함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바, 말씀과 전통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할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강조되어 왔다.

---

deny that scientific hypotheses about earth history may properly be used to overturn the teaching of Scripture on creation and the flood."

>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전통과 의식과 교회의 잠정적이고 특정한 규칙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구원과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발견한다.[21]

III. 성경의 계시 역사

지금까지 살펴본 영감의 특성, 범위, 목적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경의 계시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이다. 성경 계시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그 무오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슬람교의 코란처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창조, 구속역사, 율법, 언약, 예언,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한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시공간을 초월한 추상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선지자들, 예수와, 사도들이라는 구체적인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진리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22]

성경이 기록된 구원역사라면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현대의 과학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하는가? 현대의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역사의 개념은 역사를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얻는 창구로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의 역사는 과학적 개념의 역사와 다르다. 성경은 첫째, 역사를 기록함에 있

21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72.

22 CRC 총회 보고서, 1961: pp 153, 54.

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필요한 것만을 사용하고 둘째, 역사를 그 한 가지 목적 아래서 조명하고 있다.

>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그 성격상 발췌적이다.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역사와 그 해석 (events together with the interpretation) 이라는 말이다.[23]

성경은 분명히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의 기록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을 포함한 그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읽는다. 성경 저자들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과거에 정말로 일어난 일은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인 사건들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경은 과거에 태양이 잠시 하늘에 멈추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천문학적인 이변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묘사한다. 기적을 기록하는 관점도 역사적인 사실의 정밀성이 아니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그 목적상 발췌적이다. 이것이 성경 저자들의 관심사이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게 한 중요한 목적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물리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하여 예수 자신이 바

23. CRC 총회 보고서, 1972: p 377.

로 "생명의 떡"인 것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55)라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발체적인 목적 아래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Warfield는 옳게 말하였다.

성경의 역사를 순수 역사로 보지 않고 해석된 역사로, 말씀의 선포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공관복음서들은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각자 고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의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verbatim account)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요한은 성경이 "예수의 행하신 일" 모두를 기록한 것이 아닌 것과 성경의 목적에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요 21:25). 그 목적이 예수의 삶과 죽음이라는 객관적인 사건의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 저자는 구원 선포를 위해 자기의 관점에 필요한 것을 발췌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역사도 보는 저자의 관심사가 다름에 따라 길게 설명하기도 하고 요약하기도 한다. 성경의 많은 역사 기록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해석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이한 역사의 기록과 해석을 현대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사실을 잘못 기록한 "기록의 오류"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된 구원을 위한 선포의 다양성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의 역사 기록이 순수 역사가 아니고 해석된 역사라는 말은 성경 기록의 신빙성과 진리성을 해치고 있는가? 성경 역사가 역사의 있는 그대로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성경 영감의 특징이라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현대의 과학적인 역사의 개념에서 출발한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첫째, 성경 역사의 특수성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 자

체가 역사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기록(verbatim record)이기를 거부하는 계시 역사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러나 계시 역사라는 말은 성경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 아닌 신화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역사와 그의 기록 간에 분명한 연결을 유지해 왔다. 성경의 의미는 항상 역사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한 역사 관점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바울의 기록은 비록 아브라함의 사건의 전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의 역사적인 사실 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하는 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소망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그 사건의 정밀한 who, when, where, what, how, why를 모두 기록하지는 않는다. 예수가 부활하신 정확한 연도, 날짜와 시간, 또는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 모두 누구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공관복음서와 바울서신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중심 관점은 그 사실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즉 죄로부터의 구속, 은혜, 그리고 영생에 있다. 성경은 이러한 중심 관점으로 구속역사를 기록하며 또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 기록에서 현대의 과학적인 역사의 개념을 가지고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 목적과 특성을 오해한 데서 오는 실수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경의 계시 기록이 역사적 서술뿐 아니라 시, 예언, 지혜서등 성경 기록 당시의 문학 양식들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이 내포하는 계시

기록의 역사성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뜻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데 당시의 문학 양식을 사용해서 무오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학 양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inviolability of literary styles of Scripture)을 의미한다. 시를 이해하는 데에 역사적인 서술의 해석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넌센스인 것 같이, 성경의 권위와 해석을 현대의 과학적 사고방식에 꿰어 맞추려 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이다.

IV. 성경의 무오성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무오교리는 위에 설명한 영감의 특성, 범위, 목적과 계시의 역사성 안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성경의 무오사상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의 성격, 경험, 기록 스타일과 당시의 풍습을 사용하여(유기적 영감),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시의 목적(영감의 목적)에 완전히 무오한, 그럼으로 성령의 영감이 성경의 전체와 부분, 형식과 내용에 모두 미치는(절대/축자 영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콘텍스트와 동떨어진 성경관은 아무리 높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할지라도 성경의 내용과 상관이 없다.

>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권위를 가진다. 그리고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성경은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고 말한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 지식의 모든 분야를 취급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한 가지 중심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계시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24]

성경은 성경이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 완전하게 무오하다면, 그 무오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61년도 보고서 24는 infallibility와 inerrancy[25] 개념 사이의 논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nfallibility는 개혁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설명해온 개념이다. 개혁주의는 infallibility가 inerrancy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Infallibility는 오류가 없다는 뜻의 inerrancy, 잘못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뜻의 non-deceptivity,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non-failingness를 포함하고 있다. 개혁교회가 이렇게 말할 때에 뜻하는 inerrancy의 의미는 물론 현대의 과학적인 정확성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목적한 바에 의거한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Infallibility는 긍정적으로 완전한 신뢰(trustworthiness)를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그 말하고자 하는 바에 오류가 없고(inerrant), 잘못 인도하지 않으며(non-deceiving),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non-failing) 완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26]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개혁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말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인 의미에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이유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필요/충분하다는 sufficiency와 포괄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infallibility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

24.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56.

25. Infallibility는 "무류성"으로 inerrancy는 "무오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두 개념 모두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적으로 어떤 것에 반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nfallibility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표현이고, inerrancy는 좀 더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실수나 착오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글 번역이 이러한 뜻을 잘 전달하지 않음으로 본고에서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6.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50.

>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달한다는 것과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sufficiently)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오류 없는 가르침(infallible rule)과 어긋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27]

돌트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여러 곳에서 성경이 구원을 위해 오류가 없고(infallible) 확실한 것을 역설하고 있다.[28]

성경 영감의 범위(절대/축자 영감)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와 부분, 형식과 내용, 모두가 오류가 없고, 잘못 인도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 영감의 범위는 성경 자체의 목적 아래에서 사실인 것도 여기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발췌한 한 단어에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성령의 영감의 목적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성경의 무오사상이 성경의 콘텍스트를 떠나 임의적인 방법으로 형성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를 성경이 주장하는 것 그 이하는 물론, 그 이상의 것도 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29]

성경의 절대 권위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inerrancy를 포함한 포괄적인 infallibility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북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무오 교리는 주로 inerrancy라는 개념에

---

27. 벨직신앙고백, 7조.

28. 개혁주의 신조와 고백에 나타난 infallibility의 자세한 설명은 1961년도 CRC 총회 보고서, pp 160-185 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시각에서 전통적인 칼빈의 견해를 따라 쓰여진 현대 복음주의 학자와 비교해 보라: Donald G. Bloesch, "The Primacy of Scripture," *The Authoritative Word* (Grand rapids: Eerdmans,1983), in pp. 117-153.

29.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51.

초점을 맞추어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쓰이는 inerrancy가 담은 뜻이다.

현대에 들어와 전통 교회에서 사용하던 infallibility보다 inerrancy가 더 강조되는 것은 아마도 현대의 과학적인 사고의 패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Inerrancy의 의미도 현대에 들어와 과학적인 정밀함의 의미에 가까와진 듯 하다. 그러나 과학적인 의미의 inerrancy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 첫째, 이러한 주장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영감의 특성, 범위, 목적, 그리고 성경 계시의 특성에 초점이 맞지 않은 성경 콘텍스트의 외적인 것이며; 둘째,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non-deceptiveness)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non-failingness)를 제외시킨 축소된 의미만을 가지며; 셋째는, 그것은 사람의 증명을 거쳐야 옳다고 판단되는 경험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리처드 개핀은 이러한 과학적인 의미의 inerrancy가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성경관이 아니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밝히려고 하는 것처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의미의 정밀성은 워필드를 포함해서 개혁주의 전통이 견지해온 성경적인 의미의 inerrancy가 아니었다."[30]

James Daane은 Harold Lindsell의 극단적인 성경 무오설(inerrancy)을 비판하면서 린셀의 inerrancy 주장은 성경의 무오를 믿음으로 전제하지 않은, 경험의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할 가정으로 보았다고 말하였다. 데인의 이러한 비판이 린셀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론상 중요한 발언이다. 데인의 비판은 린셀은 높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그리고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그 권위의 일차적 근거를

30. Richard Gaffin, "Old Amsterdam and Inerranc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4, (1982), p 253.

성경의 자체 내증에 두지 않고 경험의 증명에 두었다는 것이다. 린셀은 이러한 증명이라는 가정 위에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31]

데인은 개혁주의 성경관의 확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개혁주의자는 종교적 확신과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 이것과 [린셀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무오하다(infallible)는 확신을 성경 안에서 찾는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내적인 증거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내증과 함께 자신의 정당성을 증거한다(self-validating). 성경은 자신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판단에 의한 외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32]

그러므로 과학적인 의미의 무오류(inerrancy)에만 촛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성경 권위의 포괄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며 권위의 실추를 가져오는 것이다. 데인은 inerrancy에 촛점을 맞추는 것보다 infallibility의 포괄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고 높은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성경은 성경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기록은 어떤 의미의 정밀성(precision)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무오 사상은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성경은 "사진"과 같은 정밀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초상화"와 같은 정밀성을 가지고 있는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경의 계시의 기록은 순수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

31. James Daane, "The Odds on Inerrancy," *The Reformed Journal,* (Dec, 1976), pp 5-6.

32. Daane, pp 5-6.

기록된 역사와 그 역사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의 정밀성은 "사진"의 정밀성이 아니고 "초상화"의 정밀성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 저자들이 필요한 역사의 사실을 구원이라는 초점에 맞추어 "표현한" 구원 역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 고유한 목적상 "사진"과 같은 정밀성으로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성경의 콘텍스트를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성경이 필요로 하지 않은 그 이상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결과가 된다.[33]

성경이 "초상화"적인 정밀성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부정확하게 기록되었다거나, "사진"적인 의미에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 문제이기에 앞서 성경을 올바로 보는 시각의 문제이다. 성경에서 "사진"적인 정밀성을 찾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베이컨 철학에 의해 형성된 현대 과학적인 의미의 정밀성은 콘텍스트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실인 것을 진리(truth)로 취급한다. 이 진리의 범주에는 산술적이거나, 기하학적이거나, 단순한 경험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주 안에 속한 것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의 부활, 성령의 역사는 이 진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형성된 "진리"와 "오류"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이 쓰여진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V. 원본, 원어사본, 번역본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개혁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33. CRC 총회 보고서, 1961: p 157.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앙고백은 단순한 신앙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신앙고백이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에 언급한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정확무오하다고 고백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원본을 말하는가, 원어사본을 말하는가, 아니면 번역을 말하는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출발점은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원어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성경은 번역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의 무오성은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의 신적인 권위와 무오성이 번역본에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현대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주제가 성경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느낀다. 그 이유는 이 주제가 지니고 있는 실제성 때문이다. 복음주의 경향에서 성경의 신성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설명한 바와 같이, 순전히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특별계시라는 독특한 상황에까지 연장시킴으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성경의 원본에만 제한되게 무오성의 권위를 부여해왔다. 그렇다면 현존하지 않는 성경에 부여한 권위와 무오성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더 나아가서 그러한 권위와 무오성은 어떻게 번역본에 연결되는가? 번역 성경은 신적인 권위와 무오성을 가지는가?

성경의 원본, 원어사본, 번역본과 관련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주제는 본고에서 다루기 매우 방대한 내용의 주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종교개혁 후기 개신교의 일반적인 견해,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견해,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계통의 시카고 선언을 간략하게 정

리하도록 하자.

우선 역사적으로 성경번역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종교개혁 후기였다. 유럽의 인문주의(humanism)가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고 16세기를 고대원어로 돌아가게 하였다면, 17세기는 고대언어와 그에 관련된 문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부흥하는 사본학과 본문의 비평학으로 말미암아 성경 원어연구와 해석의 중요한 장을 마련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교회가 Vulgate 라틴어번역을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에 접근함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번역본들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원어연구와 함께 번역할 원전의 선택, 번역작업에 사용할 고대 번역들의 연구, 그리고 번역본의 당위성, 가치, 그리고 권위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들을 이끌어내었다.

17세기 성경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Wendelin은 카톨릭교회와 논쟁하는 가운데 성경번역의 당위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번역본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 그가 언급한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참고 사 61:1, 눅 4:18-1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베뢰아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상고함으로 칭송을 받았다 (행 17:11).[34]

사실 성경의 구속역사에서 언어라는 주제는 사실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 신약성경의 세계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통하며 살던 시대임을 생각할 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번역이 필수적인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34. Muller, vol. 2, *Holy Scripture*, pp. 425-26.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처벌로 내려진 것이 바벨탑의 언어 혼잡이고 성령강림의 첫 번째 결과가 언어의 해득과 통일이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구속사의 중요한 계기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번역의 당위성을 기초로 하여 16세기와 17세기의 개신교 학자들은 성경원본으로부터 번역으로 연장되는 신적권위를 주장하였다. 종교개혁과 후기의 글들을 정리하면서 Richard Muller는 개신교의 일반적인 이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모든 번역본들과 비교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은 고대성, 원래의 독창성, 그리고 원형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번역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은 그것이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의 원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번역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증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번역은 원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35]

이러한 견해는 번역본의 신적인 권위와 관련하여 개신교가 견지하였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준다. 첫째는 사본들을 비교하고 판단할만한 전문적인 문서/사본 비평학과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사본들을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필요한 학문적인 요소이고, 둘째는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기초가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는 신앙적인 요소이다. 성령의 내적증거라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초는 개신교회로 하여금 원어사본의 우월성과 번역이 원어사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

35. Muller, vol. 2, *Holy Scripture*, pp. 428.

해야 한다는 학문적인 요구를 하면서도, 현존하지 않는 원본과 번역본 사이에 신적인 권위에 관한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구별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원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번역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증거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원본을 제 1의 신적 권위로 그리고 번역을 그에 열등한 제2의 신적 권위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7세기 초엽에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으며(immediately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세월동안 순수하게 보전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성경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재하도록, 그들이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번역이 되어야 한다.[36]

위의 본문은 원어성경의 우월성, 원본에만 적용되는 직접적인 영감, 성경번역의 당위성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번역본의 효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섭리로 말미암아" 원본처럼 드러나는 데에 차이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신앙고백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재하도록"이라는 평이한 표현으로 사본연구와 번역의 학문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현대의 복음주의에서 작성한 *성경무오*를 위한 *시카고 선언*을 살펴보자.

---

3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8.

> 우리는 엄격하게 말해서 영감이 오직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된다는 것과 그 원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현존하는 사본들에 의해서 매우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언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의 사본과 번역도 충실하게 원본을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언한다.
>
> 우리는 원본의 부재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한다. 더 나아가 원본의 부재로 인해서 성경의 무오성(inerrancy)이 부적절해지거나 효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37]

*시카고 선언*도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번역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증거를 인정한다. "우리는 성령이 성경을 증거하므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도록 한다."[38] 시카고 선언의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가 현대적인 시각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첫째, 성경의 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엄밀성이며, 그에 따라서 성경은 모든 종류의 지식에 있어서 엄밀하게 정확무오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바, 성경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전혀 잘못이 없고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infallibility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위에

37. 「시카고 선언」 Articles of Affirmation and Denial, art. X: "We affirm that inspiration, strictly speaking, applies only to the autographic text of Scripture, which in the providence of God can be ascertained from available manuscripts with great accuracy. We further affirm that copies and translations of Scripture are the Word of God to the extent that they faithfully represent the original. We deny that any essential element of the Christian faith is affected by the absence of the autographs. We further deny that this absence renders the assertion of Biblical inerrancy invalid or irrelevant."

38. 「시카고 선언」 Articles of Affirmation and Denial, art. XVII: "We affirm that the Holy Spirit bears witness to the Scriptures, assuring believers of the trustfulness of God's written Word."

설명한 바의 inerrancy의 개념을 사용한다.

둘째, 이렇게 형성된 신적권위와 무오성은 오직 원본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엄밀한 과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무오한 것은 오직 하나, 원본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유일한 신적권위와 무오성은 "현존하는 사본들에 의해서" "매우 정확하게" "(with great accuracy) 번역에 전달된다. 이것은 현존하는 사본들에 대한 연구의 입증을 통해서 원본의 내용이 번역에 정확하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시카고 선언이 이전의 성경이해와 다른 점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는 출발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은 "현존하는 사본들에 의해서" 또 "매우 정확하게"라는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에 전달되는 신적인 권위와 무오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엄밀성의 시각에서 볼 때에, 원본의 권위와 무오성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오직 2차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번역도 충실하게 원본을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들의 주장에서 "...한에 있어서"(to the extent that)의 의미는 경험적인 학문의 효력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은 오직 원본에만 적용될 뿐 번역에는 도무지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무오한 권위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에 있어서"라는 구절은 그들의 주장인 번역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전통적인 이해도 번역의 권위와 무오성을 이해하는데 "...한에 있어서"의 의미를 사용하였다. 다시 종교개혁 후기의 문서를 살펴보자. Rijssen은 번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그 내용의 본질에 관하여"(according to substance)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어법과 언어에 관하여"(according to the idiom and word) 하나님의 말씀이다. 번역은 "그 어법과 언어에 관하여"는 원본과 다르지만, "원본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의 본질에 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번역이 언어로는 원본과 달라도, "그 내용의 본질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이 생각되거나 말해지거나 또는 쓰여지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견해는 원본과 번역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은 하지만, 권위와 효력에 있어서 그 둘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Leigh는 "언어와 방언은 필수적이 아닌 다만 부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신적인 진리는 모든 언어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남아 있는다"라고 하였다.[3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 대한 교리는 성경이 처음 쓰여진 때부터 시작하여 보존되고 번역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포괄적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여야 한다. 성경 자체가 이러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들로는 유기적 영감의 본질과 목적, 적응, 계시역사와 무오성의 본질, 성경본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사본으로부터 번역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하는 학문적인 면과 이러한 학문적인 과정을 사용하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는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면들은 성경 자체가 가지는 신적이고 인간적인 요소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이던지 번역본이던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학문적인 입증에 있지 않고,

39. Muller, vol. 2, *Holy Scripture*, p. 428.

원본이던지 번역이던지 그것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증에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우리는 원본을 숨기시고 번역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관의 정립이 성경 밖의 어떤 논리나 증명에 달려 있지 않고 성경 자체의 주장과 성령의 내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개혁주의 성경관은 성경 영감의 특성 안에서 세워지고, 그 충분성과 무오성은 성경이 고유하게 목적하는 내용이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형성된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귀한 영감과 성경의 권위를 고백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40]

이렇게 성경관이 정립되었을 때, 그것은 경직화되고 고립된 단순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높은 성경의 권위의 이해를 성경의 전체와 부분, 표현양식과 내용에 연결시켜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성경관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순한 고백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관은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해석이라는 두 면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관은 성경의 내용 안에서 정립되지만, 다른 한 편에서 성경관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관 자체가 성경의 해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경관은 성경의 고유한 특성과 해석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축자영감설을 믿었어도 성경의 내용을 오해

40. CRC 총회 보고서, 1972: p 375.

한 것처럼, 높은 성경관을 유지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미 개혁 장로교회는 성경관의 교리적인 논쟁에만 치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올바른 성경관을 유지하는 것은 보수신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 권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에만 치중하다보면 그것이 신학의 다른 부분과 단절되고 경직화되는 위험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를 옳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경관이 신학의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성경관 연구는 성경의 신성(하나님의 말씀)과 인성(인간의 언어로 기록됨)이라는 두 가지 시각 사이에서 교회의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상황에 따라 움직여 왔다. 성경의 신성이 강조될 때 성경이 쓰여진 상황의 역사성과 문학양식이 간과되고, 반대로 성경의 인성이 강조될 때 하나님의 계시라는 면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성경관의 이슈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관의 이슈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역사 안에서 왜곡 없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 이 두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의 이 두 시각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둘 다 성령의 영감과 보존 안에 컨트롤되며 둘 다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